

그곳에 다다르자 어느새 홀쩍 밤이 찾아왔지. 거기서 나는 폴에게 내가 먼저 먹을 테니 나를 따라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권했네. 그런 다음 우리는 나무 밑 풀밭에서 잠을 잤어. 다음 날 나는 폴이 제 밭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라 생각했지.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들판에 있는 왕굴 나무 성당과 성당으로 나 있는 긴 대나무 숲길을 한동안 바라봤고, 또 마치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처럼 조금씩 움직였다네. 그러나 폴은 돌연 숲속을 비집고 들어갔고,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길을 잡고 나아갔어. 나는 그의 의도가 훤히 보여서 주의를 흐트러트리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네. 우리는 한낮이 다 되어서야 금모래 지구에 도착했지. 폴은 생제랑 호가 침몰했던 곳과 마주보고 있는 해안가로 다급히 내려갔어. 호박섬과, 이때만큼은 거울처럼 잠잠해진 그 사이의 해협을 보고 그는 소리 질렀네.

“비르지니! 아, 사랑하는 나의 비르지니!”

그리고 나서 곧바로 폴은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네. 도맹 그와 나는 폴을 숲 안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갇은 고생을 다해 그 아이의 정신을 되돌려놓았어. 몸의 감각을 되찾자마자 그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잔인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서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 되살려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네. 결국 폴은 일주일 동안 유년 시절의 짝궁과 자기가 함께 있었던 곳을 모두 찾아다녔다네. 그는